

<2012년 4월 4일 수요말씀>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주를 섬겨라

본 문 로마서 12장 10-13절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여 육도 영도 더욱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일에 말씀을 들어서 말씀 내용과 방향을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행한 자는 잊어버리지 않았을 것이고, 행하지 않은 자는 모두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주일말씀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말해 볼까요? ‘인간이 편하게만 살려다가 육도 영도 더 고생한다.’ 였습니다. ‘자기 편하게만 살려다가 인생 망한다.’ 였습니다.

이제 모두 이번 주 주일말씀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일말씀에 이어 인생 편하게만 살려 하지 말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살라고 말씀할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해 본 사람은 왜 그렇게 말씀했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실천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선생도 실천하여 보다 편안함과 안일함을 모두 뒤엎고 고생돼도 할 일을 했습니다.

먼저 전초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1>

① 사람이 할 일도 안 하고 편하게만 살면, 더욱 편안한 삶이 없어지고 못 한 일로 인하여 고통이 옵니다. (자막)

② 집과 바깥을 왔다 갔다 하려는데 집 앞에 길이 나 있지 않다고 합시다. 그러면 힘들어도 집 앞에 길을 닦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선 편하려고 길을 안 닦으면,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불편하고 힘들게 다니는 고통이 옵니다. 고생돼도 길을 닦고 만들어 놓으면 평생 그 길을 다닐 때마다 편합니다. (해당 영상 제작)

③ 사람이 할 일을 안 하고 게을리 살면 더욱 가난하게 됩니다. 신앙도 그러합니다. (초안 1쪽 다시 그리기)



<영상1> 해당 영상 제작

자기 몸을 가지고서도 모두 겪어 봤을 것입니다. 과거에 편하게 살려고 행하지 않았더니 결국 그로 인하여 고통이 왔던 것이 생각날 것입니다. 또 고생되고 힘들었지만 행하면서 살았기에 보람된 일들이 있었던 것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해야 할 일을 두고 귀찮게 생각하고 편하려고 행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귀찮고 고생되지만 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행한 사람은 남이 볼 때는 별 표가 안 나지만, 후에 행한 것으로 인하여 보람을 얻고 기쁨을 누리며 정말 행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행한 것으로 인하여 마음도 몸도 영혼도 편안하게 보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영원한 성공을 위해 멘토링 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잘 듣고, 인생에 대해 알고 행함으로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고 여러분의 영과 육을 더욱 변화시키고 차원 높여 살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수고하고 열심을 내어 행할 것을 행한 후에 그제야 자동적으로 마음 놓고 편하게 살게 됩니다. 월명동도 고생하여 일해 놓지 않았을 때는 편하게 지내라고 말해도 편하게 지낼 수가 없었고, 편하게 놀라고 말해도 편하게 놀 수가 없었습니다.

(* 그때의 모습을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영상2>

① (화면이 나오면서) 이때 월명동의 모습은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살 때입니다. 처음에 월명동은 잡초 밟이었고, 앉을 곳도 설 곳도 없었습니다. 고생과 수고를 안 하니 편한 장소도 없었고, 편하게 볼 것도 없었고, 편하게 이야기할 곳도 없었습니다.

②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편하게 해 주기 위해서 자연성전을 구상하시고, 후에 편하게 쓰도록 월명동을 개발하고 만들 사람을 부르시어 고생돼도 닦고 깎으며 일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만들게 하셨는지, 화면으로 더 보겠습니다. (만드는 모습을 화면으로 조금 더 보여 준다.)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행하면서 편하게 안 살고 고생돼도 수고하고 몸부림치며 희망의 길로 왔습니다.

③ 결국 자연성전을 완성했습니다. (완성한 모습) 고생돼도 수고하여 만드니 편하게 앉게 되었고, 편하게 서 있게 되었고, 편하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편히 앉아.” 하면 편히 앉을 수 있고, “편히 놀아.” 하면 편히 놀 곳도 있고, “편히 산책해.” 하면 편히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니다. 고생하며 다니려고 해도 고생하면서 다닐 곳이 없습니다. 보는 것도 편하고, 듣는 것도 편하고, 먹는 것도 편합니다. / 그러므로 우선 편하게만 살지 말고 고생해도 할 일을 해 놓고 편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영상2> 설교 내용에 세세하게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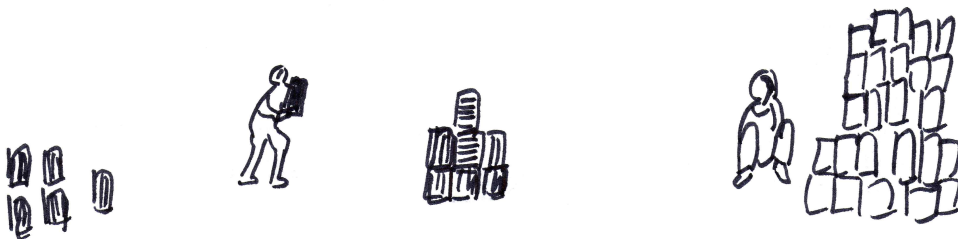
신앙생활도 우선 편하려고 편한 쪽으로만 행하면 현실에도 미래에도 희망이 아주 작습니다. 고생해도 할 일을 해야 자기 육 - 마음 - 영이 월명동같이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늘 주님 안에서 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월명동을 하나님과 주님의 구상대로 개발하며 할 일을 함으로 편하게 보고 듣고 놀고 다닐 수 있게 되었듯이, 사람도 주님의 구상대로 월명동같이 개발하고 할 일을 해야 ‘영’이 편하고, ‘육’도 일생 동안 편하게 삽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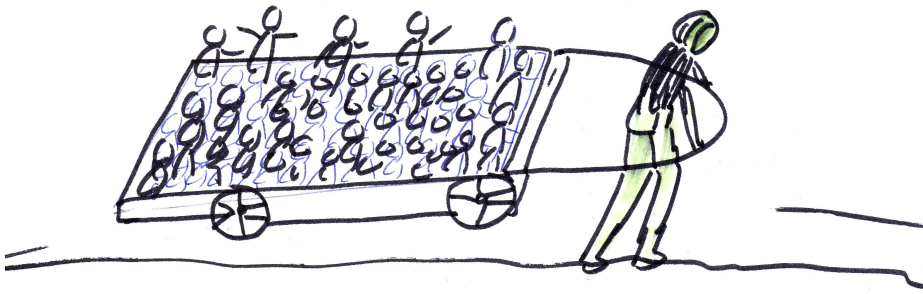
① 자기 ‘영혼’을 영원히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해, 자기 ‘육신’을 평생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해 주님의 시대 말씀을 듣고, 게으르지 말고 미루지 말고 주님을 섬기면서 ‘매일’ 그날그날의 일들을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해야 됩니다. 매일 이같이 하면 적은 고통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② 일은 밀리지 않게 매일 조금씩 해야 됩니다. 편안하게만 보내고 매일 할 일을 안 하면 나중에는 일이 쌓여서 2배, 3배, 4배나 해야 되니 못 합니다. 꾸준히 매일 하는 자는 끝까지 가게 됩니다.



③ 할 일을 하는 자체가 편한 것입니다. 할 일을 하는 자체가 편하게 사는 삶입니다. / 모두 편하게만 살려고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나 몰라라 하고 살면 자기 할 일을 누가 해 줘니까?

④ 선생도 지난날 나의 수고와 노력과 고생이었습니다. 내가 할 일을 주님이 대신 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영상3>

①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부지런히 사는 모습

② 초안 1-1쪽 참고해서 그리기

③ 할 일을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

자기 할 일을 두고 누가 해 주기만을 바라며 짜증 내는 모습

④ 초안 2쪽 다시 그린 것 보여 주며 선생님 전도하는 모습, 산기도 하는 모습, 역사 펴는 모습, 청중들 모인 모습 더 보여 주기.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해야 주님도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됩니다. ‘하늘의 절대 법’은 인간이 해야 하나님도 주님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안 하는데 주님이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헛수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상대가 되는 구원받을 자가 먼저 자기가 행할 것을 행해야 주체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도 오셔서 뜻을 이루시는 일을 하십니다.

부지런함과 열심의 책임분담은 자기가 가진 재산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썩히지 말고 자꾸 써 먹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에 해당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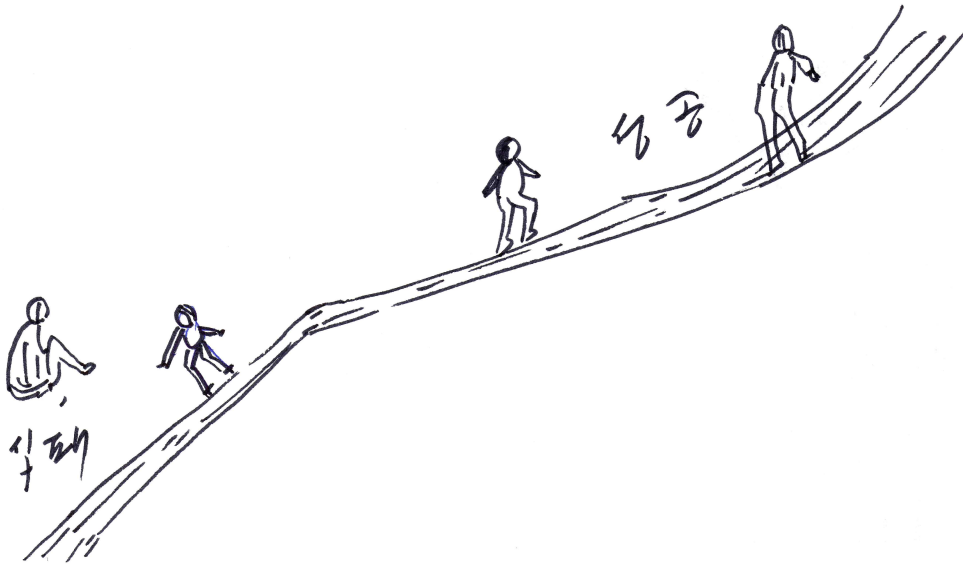
주님을 단상에 모시겠습니다. <영상4> 예수님 출현

<예수님 말씀>

전초한 말씀에 이어서 말씀할 테니 명심하여 듣자. 마치 외국에 처음으로 자기 사랑하는 애인을 찾아가려 하는데 마지막으로 자기 애인이 전화로 주소와 전화번호를 말할 때 정신 차리고 듣듯이 잘 듣고, 말하는 내용을 실천하여라.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5>

① 이번 주 주일말씀과 오늘 수요일말씀은 실패하는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성공하는 인생의 삶을 살게 해 주는 말씀이다.



② 육도 영도 성공하려면 편하게만 살면 안 된다. 편하게만 살면 인생 실패하고, 수고하고 고생하더라도 나 예수의 뜻대로 살면 성공한다.

③ 영혼이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육신은 성공해도 결국 빈손으로 세상을 떠난다. 육만을 위해 살면, 육신이 죽었을 때 영을 위해 행한 것이 없으니 영은 영원한 고통의 세계로 간다.



④ 영을 위해 살면, 육신이 죽어 흙이 되더라도 육신이 세상에서 살 때 주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하며 주 뜻대로 행하고 수고한 모든 공적을 ‘영’이 다 가지고 하늘나라로 간다.



⑤ 이 세상에서 육의 몸으로 살듯이, 육이 죽으면 영의 세상에서 영의 몸으로 산다. 영은 육신이 세상에서 살 때 행한 공적을 받아서 육신이 죽으면 그에 해당되는 영의 세계로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

⑥ 너희 육의 몸은 너희 영과 마음의 자체 애인이다. 너희의 상대성 애인은 나 예수다. ⑦ 고로 영으로 살라는 말은 첫째, 너희 육이 너희 영을 위해 살라는 말이다. 영으로 살라는 말은 둘째, 너희 영도 육도 나 예수의 뜻대로 살라는 말이다.

⑧ 어떻게 나의 뜻대로 살겠느냐. ‘나의 뜻’은 늘 설교를 통해 말한다. 혹은 계시자들을 통해 말하기도 한다. 혹은 너희가 기도하면 성령으로 나 예수가 깨우쳐 주기도 한다.

<영상5>

① 초안 2쪽 다시 그리기

② 편안하게만 살면 인생 실패,

수고하고 고생되더라도 주 뜻대로 살면 인생 성공

③ ‘영혼이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막>

초안 2-1쪽 다시 그리기

④ 초안 4쪽 다시 그리기

⑤ 이 세상에서는 육의 몸으로, 영의 세상에서는 영의 몸으로 사는 모습 / 육신이 행한 대로 거하는 차원급에 따른 수많은 영계들

⑥ 우리 육신 ⇄ 우리 영, 마음 (자체 애인)

우리 육과 영 ⇄ 예수님 (상대성 애인)

⑦ (첫째) 육신 → 영 / (둘째) 육과 영 → 예수님

⑧ 선생님 말씀 받으시는 모습, 원고 / 계시자들 계시 / 기도

현대인들은 편하게만 살려고 갖은 애를 쓰며 우선 마음과 몸이 편하게만 산다. 어린 자나 나이 든 자나 우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기뻐하고 웃고 즐기는 삶을 산다. 그러나 우선 편한 삶을 살면 성공의 삶이 오지

않는다. 진정으로 편안한 삶이 오지 않는다. 결국에는 고통이 오고, 한탄이 오고, 곤고함이 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삶으로 이어진다. 고로 실패의 삶이 된다.

(* 다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6>

① 농부가 편안하려고 농사는 안 짓고 매일 잠만 자고, 놀고, 그늘 아래서 부채질만 하고 살면 결국 어떻게 되겠느냐. 겨울철 눈보라에 먹을 것을 얻어먹으러 다니는 벼짖이 신세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누가 자기 먹을 것을 안 먹고 죽을 고통을 당하면서 남에게 주겠느냐.

② 장사하는 자도 우선 고생되니 편하게만 살려고 일은 안 하고 놀기만 하면 결국 고생의 쓴 잔을 마시고 살게 된다.

③ 공부하는 자도 우선 편하려고 공부는 안 하고 고생된다고 놀기만 하면 결국 고생의 쓴 잔을 마시고 살게 된다.

④ 우선 고생된다고 귀찮아하면서 방에서도 응접실에서도 정원에서도 운동장에서도 어디서든지 매일 조금씩도 운동을 안 하면 결국 병이 누적되어 치명적인 병이 오고 만다. 그래 놓고 ‘왜 주님의 일을 하는데 몸이 아프지? 고생하지?’ 한다. 어이가 없어 나 예수가 쳐다보기 민망하다.

<영상6> 해당되는 영상 번호대로 세밀하고 제작

나 예수가 육의 몸으로 세상에 있을 때 말하기를 “내가 심지도 않고 거두고, 두지도 않고 취하는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눅 19:22).” 하지 않았느냐. 나는 구세주로서 늘 할 일을 한다. 전능자 하나님도 늘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는 너희를 위한 일들이 많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나 예수도 너희가 못 하는 일을 해 주며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존재시키며 구원한다. 그러니 너희도 나 예수와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이 못 해 주는 일을 해야 된다. 그 일은 육신을 가진 너희가 꼭 해야 할 일이다.

너희가 행할 때 내게 하나하나 물어서 내 아버지와 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함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이를 깨닫지 못하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문제가 생겼지? 정말 답답하다.” 하며 하나님과 나를 원망한다. 내가 말한 것을 깨닫고 의문을 풀어라.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7>

① 현시대 사람들은 마음과 육을 위해서 각종으로 편하게 만들어 놓고 산다. 과학 문명이 극도로 발달되어 전자 시스템과 모든 교통수단과 생활용품 등 모든 것이 최고로 발달되어 있다. 몸으로 옮기던 것을 손가락 하나로 옮긴다. 스위치를 누르거나 어떤 것을 손으로 작동하기만 하면 된다. 몸으로 하던 것을 기계로 하고, 걸어 다니다가 차를 타고 다니는 등 편한 세상이 되었다. 마치 제2의 하늘나라가 된 것 같은 이 세상이다.

② 그런데 여기서 더 편하게 살려고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오락과 각종 게임들을 즐기며 먹고 놀고 다리 뻗고 살려고 한다. 문명이 발달되어 편한 세상이 되었으니 창조자 하나님을 더욱 섬기고 사랑하며 기쁨으로 영광 돌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같이 사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 돌리며 사는 자들을 비난하고 비판한다.

③ 육체만을 위한 편한 삶은 아무리 누리고 누려도 결국 짧은 날은 한계가 있어서 금방 간다. ‘육신’의 소년기도, 청년기도, 중년기도, 노년기도 잠깐이면 간다. / ‘영’도 만들어질 때가 있어 때가 지나면 육신이 시들듯 시들어, 육신만을 위해 살다가 죽으면 그 영혼은 사망 지옥 쪽으로 가게 된다. 육신이 육으로만 편하게 살았기 때문에 영이 그같이 된 것이다.

<영상7>

① 전자 시스템, 교통수단, 생활용품 극도로 발달된 시대

설교 내용에 따라 실감 나게 현실의 것으로 제작 (스마트폰 포함)

② 그런데 더 편하게 오락이나 게임이나 세상 즐거움만 즐기며 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는 것 싫어하고, 오히려 비판한다.

- ③ 소년이 금방 청년 되고, 청년이 금방 중년 되고, 중년이 금방 노년 되고, 노년이 금방 죽는 날이 된다. / 영도 때가 되면 육신이 죽고 영원한 사망길로 가서 지옥으로 간다.

육신이 사망으로 안 가고 영이 사망으로 갔으니 육이 “나는 영을 몰라. 고생하든지 말든지, 육이 아니고 영이니까 나와는 상관없어. 육은 죽어 없어지니까 나는 몰라.” 한다.

영이 곧 육체와 같다. 육의 정신과 생각과 혼이 영에게 옮겨져 영과 함께 사망으로 갔으니 육이 간 것과 똑같다.

쉬운 말로 설명하면, 꿈속에서 육체가 아닌 혼체가 고통 받고 각종 귀신한테 쫓기면 육이 아니니 육은 안 놀라느냐. 꿈에서 악몽을 꾸면, 육이 몸부림치고 소리를 지르고 땀도 나고 미치기까지 하지 않느냐.

그와 같이 육이 죽으면 육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과 혼이 영에게 옮겨져 영과 함께 가니, 육이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죽으면 육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과 혼이 영에게 옮겨져 영과 함께 사망 지옥에 간다. 그러니 육이 간 것과 같다.

흔히 너희가 꿈으로 보는 것은 초자연적 현상에서 보이는 평소 육의 행실들이다. 평소 육의 마음과 행실들이 꿈에 나타나 거울 속에 자기 육의 모습을 비추듯 꿈에 비춘다. 꿈에 보이는 것은 평소 자기 육신의 현상이 대부분이다. 간혹 자기 영의 현상이 꿈에 보이기도 한다.

꿈에서 보이는 것이 평소 자기 육의 현상이듯, 영의 현상은 곧 육의 현상이다. 육이 죽은 후에 그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영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영의 현상은 육보다 생각과 느낌이 100배, 1000배 더 또렷하여 영이 사망으로 가면 육보다 100배, 1000배 더 고통을 무섭게 느낀다.

섭리역사로 와서 나 예수를 믿고 사랑하며 사는 너희는 이 귀한 때에 자기 육의 일시적인 편안함을 위해 안일주의로 살지 말아라. 자기가 좋아

하는 것과 세상 쪽으로 기울어 그것을 사랑하며 살지 말고, 고생돼도 나
예수의 뜻을 행하면서 나 예수와 같이 뛰자.

조금 편하려고 제 할 일을 안 하면 곧바로 표가 난다. 조금 편하려고
밥 먹고 이를 안 닦는 격이다. 조금 편하려고 밥 먹고 이를 안 닦으면 금
방 냄새가 나서 표가 나고, 결국 충치가 생기고, 이가 빠지고, 잇몸으로
살지 않느냐. 조금 편하려고 제 할 일을 안 하는 자들이 바로 이와 같다.

움직이기 싫어하는 자는 게으른 자다. 편하려고 기도 안 하고, 편하
려고 기도해도 깊이 안 하고, 편하려고 교회도 안 나오고, 편하려고 전도
할 자를 전도하지 않고, 편하려고 관리할 자를 관리하지 않는다. 게을러
서 교회에 안 다니고, 전능자와 나 예수를 믿지 않고 산다. 자기 주관으
로 사는 자들과 육의 편안한 것만 추구하는 인생은 육도 영도 실패한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8>

① 나의 재림을 앞에 두고 남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마지막 이때, 너
희는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전능자를 사랑하고 섬기며 시대 말씀을 더
욱 행하며 회개하고 깨끗이 하여라. 그리고 현재 자기 위치에서 뛰어올라
한 단계 더 차원을 높여라. 그래야 나 예수를 맞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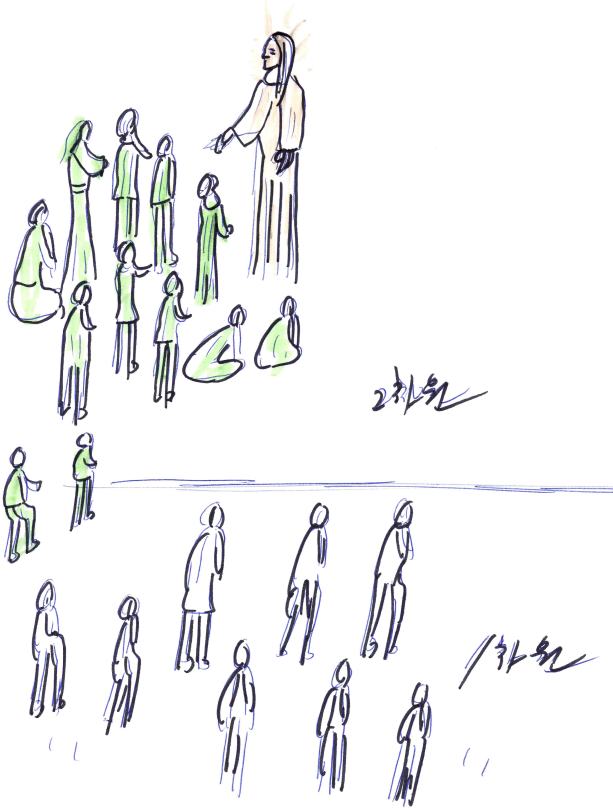
② 저마다 자기 앞에 오는 유혹을 다 이길 수 있는데, 힘들고 고생된
다고 이기려 하지 않으니 못 이기는 것이다.

③ 상대에게 지면 진 자가 이긴 자의 종이 된다. / 너희가 사탄에게
지면 이긴 사탄의 종이 된다. 너희를 구원하는 나 예수의 말을 명심하여
심각하게 듣고 행하지 않으면, 너희 영혼이 흑암으로부터 사냥을 당한다.

④ 누구든지 편하려고 하는 삶이 하루 이틀 습관이 들고 체질이 되
면, 태만한 동물이 포식자에게 사냥을 당하듯이 누구든지 당한다. 치타처
럼 뛰어 지상에서 날면서 살아라. 그러면 오히려 사냥을 하지, 잡히겠느
냐. 나 예수와 같이 치타같이 뛰어라. 독수리같이 날아라.

⑤ 교역자들은 수준을 높여라. 편하게 살려 하지 말고, 나의 양 떼를
부지런히 쳐라. 항상 노력하고 연구하고 열심을 내어라. 게으르지 말아

라. 너희가 ‘중심’ 이 바로 서야 된다. 계속 기도하고 신념을 가져라.
나의 양 떼를 관리하지 못하여 내 기대에 어긋나면 네 기대도 어긋난다.



⑥ 사탄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니 강하게 양 떼를 지켜라. 나의 사랑하는 생명들이 만족하도록 ‘말씀’ 으로 채워 주어라.

⑦ 자신이 먼저 근신하고 열심을 내어 나 예수를 섬기고, 나의 육으로 보낸 자와 일체 되어 행하여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복한다.

나 예수의 말을 지켜 행하여라.

너희를 구원하는 주 예수다. 샬롬!

<영상8>

① 서산에 해가 지는 때 / 더 열심히 행하며 차원을 높이는 모습

②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이기려 하지 않는 모습

③ 진 자가 이긴 자의 종이 되는 모습

사탄이 이기면 우리가 사탄의 종이 되어 끌려 다니는 모습
예수님에게서 떠나가니 흑암이 그 영혼을 덮는 모습

- ④ 태만하게 있는 동물을 포식자가 사냥하는 모습 (실제 영상)
치타가 빠르게 뛰어가서 사냥하는 모습
- ⑤ 초안 5쪽 다시 그리기 (여기부터 교역자 해당 영상)
- ⑥ 사탄이 사람을 통해 꺾는 모습 / 이때 말씀으로 지키는 모습
- ⑦ 예수님과 일체, 선생님과 일체 된 모습
- ⑧ 예수님 인사로 마무리